

음악과 꽃의 만남...24~26일 장성 황룡강 꽃길축제

다양한 장르 음악 주제 변화 시도
개막 축하 공연·뮤직 페스티벌
10CM·정서주 등 뮤지션 출연



장성군이 24~26일 황룡강에서 길동무 꽃길축제를 연다. 좌측이 뮤직 페스티벌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 황룡정원 잔디광장. <장성군 제공>

장성군을 대표하는 봄축제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가 음악을 주제로 로맨틱한 변화를 시도한다. 장성군은 길동무 꽃길축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 축제는 장성군이 20여 년간 이어진 '홍길동 축제'에 꽃길을 접목해 새로운 축제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음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시도한다. 축제가 정점에 이르는 25일 저녁에 선보일 '뮤직 페스티벌'이 대표적인 콘텐츠다. 축제 주무대인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황룡정원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강변 방면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계단식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축제장 전체를 음악 공연에 맞춰 재구성한 셈이다. 축제 이후에도 소규모 행사나 주민 여가생활에 두루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뮤직 페스티벌에는 '음악 마니아'들의 귀

를 솔깃하게 할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한다. 흥대 인디 씬에서 시작해 메인 스트림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10CM'를 비롯해 로맨틱한 4인조 밴드 '소란', '싱어게인 3'에 출연해 탄탄한 실력을

뽐낸 싱어송라이터 김수영의 공연이 이어진다. 개막식이 열리는 24일 저녁엔 '미스트롯 3'에서 우승한 정서주와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인기를 끈 황민우-황민호 형제, '모정의 세월'을 부른 한

세일 등의 무대가 축제의 시작을 장식한다. 놀거리도 다양하다. 애완동물과 함께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조성한 장성제일교 인근 '팻밀리랜드'에선 반려견 간식 만들기 체험과 세미나, 시범 공연 등이 펼쳐진다. 가족 동반 방문객을 위해 상류 방면에 만든 '황미르플레이랜드'에선 어린이 놀이터와 에어바운스, 각종 체험과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축제장 건너편 힐링허브정원에서 세계문화놀이 체험과 공연, 미술작품 전시가 열린다.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25일까지 장성 관내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한해서 축제 주무대 앞 좌석(상생공동석)을 선착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장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에선 축제 기간 30%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올해 뮤직 페스티벌을 발판 삼아 앞으로 세계적인 뮤지션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나선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에 많은 관심과 응원-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월야면 야산 유해발굴 시작

함평군이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가족 찾기에 나선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흠배비봉 인근 야산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이 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함평에 주둔한 육군 11사단 군인들에 의해 사망한 무연고 희생자 16구의 시신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대적인 빨치산 소탕작전이 전개되면서 월야면, 해보면 일대에 서산 군경에 의해 민간인 258명 가량이 희생됐다. 당시 유족들이 사견현장에서 연고를 찾지 못한 시신 16구를 월야면 남산외에 매장했다가, 1990년 토지 주인이 이장을 요구하자 현재 월야리 흠배비봉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함평군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유해발굴을 마친 뒤 유족회 회원들과 DNA 대조를 거쳐 가족을 찾을 예정이며, 무연고 유해는 세종시 추모의집에 안치한다. 이번 발굴작업에는 국비 1억5000만원을 사용하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직원도 진행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민간인 유해발굴은 진상 규명과 과거사 청산은 물론 기념과 위령까지 포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무연고 희생자 발굴사업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목야청청' 청춘 버스킹 30일 첫 선...10월까지 공연

강진군이 청춘버스킹 '목야청청'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한다. 강진군은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도,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목요일 밤의 청춘 버스킹 '목야청청'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강진읍 일대에 차 없는 거리를 적용해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을 통해 문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의 배경음악'을 목표로 라이브연주가 가능한 전국 거리공연자를 공모해 출연진을 꾸리는가 하면, 강진읍 20여개 상가와 협의를 거쳐 영국의 펌 문화를 응용한 '목야청청 에티켓'을 홍보하는 등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문화의 완성도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공연은 강진군 수협 강진읍지점 일원에서 전국 공모로 뽑은 실력과 뮤지션들의 버스킹으로 진행된다. 공연을 볼 수 있는 목요일은 30일, 6월 13일, 20일, 27일, 7월 4일, 11일, 18일, 25일, 8월 1일, 29일, 9월 26일, 10월 31일로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나주시 평생학습 '블루투어-미디어아트'를 입다 참가자들이 광양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있다.

나주시 미디어아트 접목 생태관광 선보인다

제작 참여 50명 선착순 모집
나주시가 다음 달까지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생태관광 '블루투어'를 선보인다. 나주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전남도 민정책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나주시 블루투어-미디어아트를 입다'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여행은 전남의 주요 생태관광지원을 여행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기록물을 미디어 예술로 직접 제작해보는 평생학습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지역 관광 10선을 포함한 생태관광자원을 미디어아트와 융합하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있다. 여행은 현장 탐방과 체험, 영상 촬영,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등을 아우르는 15회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테마관광', '위케이션과 로컬스테이', '농어촌 치유 관광'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결과물인 미디어아트 작품은 4회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 전시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사전 선착순 접수를 통해 50명의 학습자를 모집했다. 지난 18일에는 ICT테마관광의 하나로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와인동굴 등 광양지역 현장을 탐방했다. 오는 25일에는 나주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위케이션 로컬스테이'를 진행한다. 국립나주박물관 옛 나주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금성관, 나주목민화관, 서성문, 나주향교, 3917마중 등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흥지역 청년 14명이 최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기념하고 있다.

장흥 '로컬 크리에이터' 14명 출격 준비 끝

교육 수료...지역자원 활용 창업
장흥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로컬 크리에이터' 14명이 사업 준비를 마쳤다. 장흥군은 지난 20일 군민회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안 발굴과 사업화를 돕는다. 장흥에 사는 만 19-49세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가 대상이다. 장흥군은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역자원조사, 상권분석, 소셜미디어(SNS) 판촉, 생방송 판매, 회계-법률 교육 등을 벌였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14명이 교육을 마쳤고, 15종 이상의 시제품을 선보였다. 주요 시제품으로는 장흥의 향을 담은 '마음양초', 장흥 문학인 글귀가 새겨진 방향제, 자소엽을 활용한 술인 자소엽주 등이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장흥 표고버섯을 본떠 만든 굿즈(상품)와 차, 편백 반려식물, 마용·주방·여행 꾸러미 등도 선보였다.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시제품 발표를 통해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청년들이 애항심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